

성인간호학회지(2010~2014)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간호이론 활용을 중심으로

한남경¹ · 김상희² · 김명신³ · 김종근⁴ · 김창환⁵ · 최승혜⁶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¹,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김모임 간호학 연구소²,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³,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⁴,
삼성서울병원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⁵, 육군학생군사학교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⁶

Trend Analysis of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for 5 Years (2010~2014): Focused on Usage of Nursing Theories

Han, Nam Kyung¹ · Kim, Sanghee² · Kim, Myoung Shin³ · Kim, Jong Gun⁴ · Kim, Chang Hwan⁵ · Choi, Seung Hye⁶

¹Department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²College of Nursing & Mo-Im Kim Nursing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oul
³Gangnam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⁴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⁵Samsung Medical Center, Seoul &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⁶Amy Cadet Military School &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nursing theories b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KJAN) for the last five years and to provide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Methods:** The study analyzed data collected from 323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JAN between 2010~2014. Descriptiv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focus on frequency and percentage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Qual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analysis of nursing theories. **Results:** As for research topics, the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meta-paradigm of nursing show that the most frequent factors of analysis were adult patients in the area of human beings, hospitals in the area of environment,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e in the area of health, and all the influential factors in the area of nursing. The analysis results of uses of nursing theories in the papers reveal that only 4(1.2%) out of total 323 papers used the nursing theories, which indicates that the linkage and utilization of nursing theories in the published papers for the last five years were poor. **Conclusion:** We needs to make efforts at the society level to activate nursing theory utilization in research which is beloved to connect nursing practice, education, and research.

Key Words: Nursing research, Trends, Nursing theories, Analysi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89년에 성인간호학회가 창립되고 성인간호학회지 제1호

가 발행되면서 한국간호과학회와 더불어 국내간호과학 분야에
서의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성인간호학회지는 2004
년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선정되면서 학술지로서의 우수
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2011년 CINAHL (Cumulative Index of Nursing and Allied

주요어: 간호연구, 동향, 간호이론, 분석

Corresponding author: Kim, Sanghee

College of Nursing & Mo-Im Kim Nursing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3388, Fax: +82-2-392-5440, E-mail: sangheekim@yuhs.ac

Received: Jul 8, 2015 / Revised: Sep 26, 2015 / Accepted: Sep 30,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Health Literature), SCOPUS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학술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외적으로도 인정받는 학술지가 되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발간횟수가 연 6회로 증편되고 한해 평균 70여 편의 논문이 게재되면서 성인간호 분야 연구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성인간호학회지가 양적으로 증대되는 시점에서 학회지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연구논문의 질적인 수준 향상도 모가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간호의 과학적 근거를 밝혀서 간호의 법칙성을 찾아내고 간호 실무 및 연구 영역에서의 이론적인 위상 확립을 위한 간호이론 관련 연구의 제조명이 필요하다. 갈수록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현상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보편화됨으로써 학문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간호학분야에서도 인접한 다른 학문들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간호탐구영역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간호연구 및 간호학의 발전은 다양한 학문의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론 적용과 더불어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간호학만의 개념이나 이론적 기틀을 적용한 연구의 활성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학의 학문적 토대가 되는 간호이론이 다양한 간호 현상 안에서 연구-이론-실무 과정에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에 성인간호영역에 축적된 간호연구물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KJAN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면, Choi 등[1]이 창간호부터 2000년도까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것이 있으며, 이 외에도 양적 연구 특성 중심의 분석[2], 질적 연구 특성 중심의 분석[3], 2007년도부터 3년간 게재 및 게재불가논문의 사유를 주제와 연구방법 및 결과 해석의 관점에서 분석[4], 2009년부터 2년간 실험중재, 연구의 근거등급을 중심으로 분석[5]한 연구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성인간호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동향 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들은 연구 주제나 주요어, 주요 개념, 연구방법론, 연구대상자 등을 포함한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과 양적 및 질적 연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나타나, 독자적인 간호지식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간호이론적인 기틀을 바탕으로 한 연구 현황 분석이나 그러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간호이론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회지의 최근 5년 동안 발표된 연구논문을 전수 조사하여 연구방법론적 특성 측면에서 간호의 근간이 되는 간호이론의 성인간호영역에서의 활용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성인간호학회지의 전반적인 연구동향과 이를 토대로 학술지의 질적인 향상 그리고 성인간호연구의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회지에 최근 5년 동안 게재된 연구논문을 연구방법론에 따라 분석하고 간호이론 기반 연구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간호 지식체의 발전과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방법론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다.
-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의 연구 주요어, 연구 대상자 및 간호의 메타패러다임 등과 관련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다.
-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 중에서 간호이론 기반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회지에 최근 5년 동안 게재된 모든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유형 및 연구방법 등을 분석하여 간호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이 중 간호이론 기반의 연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지식체 확보를 위한 근간으로 삼고 성인간호학회지의 향후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시기별 연구 유형 및 방법론적 특성과 간호의 메타 패러다임 중심의 연구 그리고 간호이론 기반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총 323편의 전체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논문 분석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간호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2,3] 및 간호이론 관련 문헌자료를 토대로 3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논문 분석의 엑셀 코딩틀을 확정하였다. 분석 내용은 크게 시기별 연구자 및 연구대상

자 그리고 연구 장소 등 연구의 일반적 특성, 연구의 유형 및 설계 등의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간호에서의 메타페러다임 중심의 주제어 분석, 간호이론 기반의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이론의 구분과 간호개념, 중심개념 연결의 적절성, 이론 개념 사용의 적절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분석들에 따라 연구자들이 예비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의 틀이 모호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논의를 거쳐 분석 틀을 수정한 후 1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후 재논의를 통해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른 추가 검토를 실시한 후 조정 및 합의를 통해 최종적인 분석 틀을 확정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연구자내, 연구자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자간 코딩틀 각 변수 분석결과와 일치도 평균은 80.0%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성인간호학회지에 최근 5년 동안 게재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체 논문을 5명의 연구자들이 학회지 사이트로부터 확인한 후 확정된 분석 도구의 틀에 따라 엑셀 프로그램에 코딩작업을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3월 10일에서 3월 20일까지였으며, 수집된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6월 30일까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료분석을 하였다. 연구논문의 정량적 분석을 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중심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성적 분석으로 간호이론 관련 연구논문으로 나타난 4편을 읽고 간호이론의 개념적 틀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의 정량적 분석 결과

1) 시기별 연구 동향

최근 5년간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323편이었으며, 2013년 68편(21.1%), 2010년 및 2014년 각 67편(20.7%), 2012년 64편(19.8%), 2011년 57편(17.6%) 순으로 연도별로 비슷한 분포의 게재 현황을 보였다.

2) 연구의 일반적 특성

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연구자, 연구대상자, 연구 장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자는 교수 211편(65.3%), 대학원생

78편(24.1%), 간호사 24편(7.4%), 시설관계자 등이 10편(3.1%) 순이었으며, 연도별 구분에서도 매년 교수가 연구자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연구대상자는 성별로 구분했을 때, 남녀 모두가 대상인 경우 203편(62.8%), 문헌고찰 등 인간 이외의 연구대상자 62편(19.2%), 여성 44편(13.6%), 남성 14편(4.3%) 순이었으며, 생애주기별로 구분했을 때, 성인이 대상인 경우가 281편(87.0%), 모든 연령층 25편(7.7%), 청소년 포함한 기타가 16편(4.6%) 순의 분포를 보였으며, 연도별 구분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장소는 병원이 158편(48.9%), 지역사회가 81편(25.1%), 학교가 32편(9.9%), 요양시설 등의 기타 시설이 26편(8.0%), 문헌고찰 등 기타가 18편(5.6%), 가정이 8편(2.5%) 순이었으며, 연도별 구분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 연구 및 자료분석방법에 대한 결과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의 유형은 양적 연구 250편(77.4%), 질적 연구 37편(11.5%), 메타분석 및 체계적인 문헌고찰 11편(3.4%), Q방법론 8편(2.5%), 프로그램 개발 5편(1.5%), 개념분석 2편(0.6%) 등의 순으로 분포하여 양적 연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구분했을 때에도 양적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양적 연구는 총 250편 중 설문조사 173편(53.6%), 실험연구 63편(19.5%), 이차자료분석연구 8편(2.5%), 방법론적 연구 4편(1.2%) 등의 순으로 분포하여 양적 연구 중 설문조사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는 총 37편 중 현상학적 접근 16편(5.0%), 내용분석 10편(22.2%), 근거이론적 접근 6편(1.9%) 등의 순으로 분포하여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 접근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은 자가 기입 설문지 형태의 수집 223편(69.0%), 면담법 82편(25.4%), 생리적 측정법 42편(13.0%), 의무기록지 25편(7.7%), 관찰법 19편(5.9%), 델파이기법 1편(0.3%)의 순으로 분포하여, 자료수집방법 중 자가 기입 설문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에서 통계적 분석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차이 검증법으로 t-test 189편(58.5%), 분산분석 124편(38.4%), χ^2 test 110편(34.1%)의 순으로 분포를 보였으며, 연도별 비교에서도 t-test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리고 상관성 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ublished in KJAN for Last 5 Years (unit: the number of articles) (N=323)

Variables	Characteristics	Total	2010	2011	2012	2013	2014
		n (%)	n (%)	n (%)	n (%)	n (%)	n (%)
Total		323 (100.0)	67 (100.0)	57 (100.0)	64 (100.0)	68 (100.0)	67 (100.0)
Researcher (1st author)	Professor	211 (65.3)	56 (83.6)	40 (70.2)	33 (51.6)	46 (67.6)	36 (53.7)
	Nurse	24 (7.4)	2 (3.0)	8 (14.0)	7 (10.9)	4 (5.9)	3 (4.5)
	Graduate student	78 (24.1)	9 (13.4)	7 (12.3)	19 (29.7)	17 (25.0)	26 (38.8)
	Others	10 (3.1)	0 (0.0)	2 (3.5)	5 (7.8)	1 (1.5)	2 (3.0)
Study population (gender)	Female	44 (13.6)	3 (4.5)	10 (17.5)	9 (14.1)	13 (19.1)	9 (13.4)
	Male	14 (4.3)	0 (0.0)	4 (7.0)	3 (4.7)	4 (5.9)	4 (6.0)
	Both	203 (62.8)	63 (94.0)	12 (21.1)	41 (64.1)	37 (54.4)	49 (73.1)
	Unknown	62 (19.2)	1 (1.5)	31 (54.4)	11 (17.2)	14 (20.6)	5 (7.5)
Study population (life-cycle)	Adult	281 (87.0)	66 (98.5)	32 (56.1)	59 (92.2)	61 (89.7)	63 (94.0)
	Growing generation	1 (0.3)	0 (0.0)	0 (0.0)	1 (1.6)	0 (0.0)	0 (0.0)
	All ages	25 (7.7)	1 (1.5)	23 (40.4)	0 (0.0)	1 (1.5)	0 (0.0)
	Others	15 (4.6)	0 (0.0)	2 (3.5)	4 (6.3)	6 (8.8)	3 (4.5)
	None applicable	1 (0.3)	0 (0.0)	0 (0.0)	0 (0.0)	0 (0.0)	1 (1.5)
Study on the place	Hospital	158 (48.9)	25 (37.3)	25 (43.9)	36 (56.3)	40 (58.8)	32 (47.8)
	Community	81 (25.1)	13 (19.4)	15 (26.3)	13 (20.3)	17 (25.0)	23 (34.3)
	School	32 (9.9)	15 (22.4)	4 (7.0)	4 (6.3)	6 (8.8)	3 (4.5)
	Other facilities	26 (8.0)	11 (16.4)	4 (7.0)	7 (10.9)	1 (1.5)	3 (4.5)
	Home	8 (2.5)	3 (4.5)	4 (7.0)	0 (0.0)	0 (0.0)	1 (1.5)
	None applicable	18 (5.6)	0 (0.0)	5 (8.8)	4 (6.3)	4 (5.9)	5 (7.5)

석방법 중 Pearson correlation 90편(27.9%), Multiple regression 89편(27.6%), 기타 상관분석 분석 78편(24.1%), Logistic regression 34편(10.5%)의 순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4) 연구 주제 분석 결과

연구 주제의 분석은 논문에 제시된 제목 및 주요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 Kim[2]과 Kim[3]이 제시한 간호학의 메타 패러다임인 인간, 환경, 건강, 간호의 영역 중 다빈도로 도출된 주요어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중복응답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간의 영역 중 빈도수가 높은 주요어는 성인 환자 135편(41.8%), 간호사 59편(18.3%), 일반인 50편(15.5%), 노인 환자 46편(14.2%) 순의 분포를 보였다.

환경 관련 주요어는 병원 106편(32.8%), 지역사회 99편(30.7%), 특수부서 31편(9.6%), 외래 27편(8.4%), 교대근무 20편(6.2%) 순의 분포를 보였다.

건강 관련 주요어는 기타 107편(33.1%)을 제외하고 우울, 불안, 자살이 56편(1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건강 상태 54편(16.7%), 자아존중감이나 신념 등에 포함된 태도 51편(15.8%), 스트레스 36편(11.1%), 삶의 질과 기타 신체증

상이 각 35편(10.8%), 지식 27편(8.4%), 건강증진 20편(6.2%), 사회적 지지 19편(5.9%), 통증 16편(5.0%), 자가 간호 15편(4.6%), 자기효능감 14편(4.3%), 암 4편(1.2%) 순의 분포를 보였다.

간호 관련 주요어는 간호와 관련이 없는 문헌고찰이나 정책 분석 등을 실시한 79편(24.5%)을 제외하고 제반 영향요인 분석이 140편(43.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체요법을 제외한 프로그램 적용 42편(13.0%), 프로그램 적용을 제외한 간호중재 18편(5.6%), 프로그램 개발 12편(3.7%), 대체요법 적용 11편(3.4%), 대처 9편(2.8%), 환자교육 7편(2.2%), 마사지요법이나 간호진단 그리고 호스피스 5편(1.5%)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Table 3).

2. 간호이론 관련 정성적 분석 결과

논문에서 간호이론 및 개념 등을 사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23편 중 간호이론을 사용한 논문이 4편(1.2%), 간호 개념을 사용한 논문이 15편(4.6%), 타 학문 이론을 사용한 논문이 21편(6.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론이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논문은 283편(87.6%)의 분포를 보여 간호이론이나 간호개념을 사용한 논문이 총 5.8%에 불과하고 이중 간호

Table 2. Trends in the Types of Research and Research Designs in KJAN for Last 5 Years (unit: the number of articles) (N=323)

Variables	Characteristics	Total	2010	2011	2012	2013	2014	
		n (%)	n (%)	n (%)	n (%)	n (%)	n (%)	
Total		323 (100.0)	67 (100.0)	57 (100.0)	64 (100.0)	68 (100.0)	67 (100.0)	
Research type	Qualitative	37 (11.5)	8 (11.9)	7 (12.3)	2 (3.1)	10 (14.7)	10 (14.9)	
	Quantitative	250 (77.4)	53 (79.1)	44 (77.2)	57 (89.1)	49 (72.1)	47 (70.1)	
	Program development	5 (1.5)	2 (3.0)	2 (3.5)	0 (0.0)	1 (1.5)	0 (0.0)	
	Q methodology	8 (2.5)	1 (1.5)	1 (1.8)	1 (1.6)	3 (4.4)	2 (3.0)	
	Concept analysis	2 (0.6)	0 (0.0)	1 (1.8)	0 (0.0)	0 (0.0)	1 (1.5)	
	Meta-analysis & systemic review	11 (3.4)	3 (4.5)	2 (3.5)	2 (3.1)	3 (4.4)	1 (1.5)	
	Others	10 (3.1)	0 (0.0)	0 (0.0)	2 (3.1)	2 (2.9)	6 (9.0)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Survey	173 (53.6)	42 (62.7)	35 (61.4)	40 (62.5)	27 (39.7)	29 (43.3)	
	Experimental study	63 (19.5)	8 (11.9)	9 (15.8)	11 (17.2)	22 (32.4)	13 (19.4)	
	Methodological study	4 (1.2)	1 (1.5)	0 (0.0)	2 (3.1)	0 (0.0)	1 (1.5)	
	Secondary data analysis	8 (2.5)	1 (1.5)	0 (0.0)	4 (6.3)	0 (0.0)	3 (4.5)	
	Others	2 (0.6)	1 (1.5)	0 (0.0)	0 (0.0)	0 (0.0)	1 (1.5)	
Research design (Qualitative)	Phenomenology	16 (5.0)	4 (6.0)	5 (8.8)	2 (3.1)	0 (0.0)	5 (7.5)	
	Grounded theory	6 (1.9)	1 (1.5)	1 (1.8)	0 (0.0)	2 (2.9)	2 (3.0)	
	Ethnography	2 (0.6)	0 (0.0)	0 (0.0)	0 (0.0)	0 (0.0)	2 (3.0)	
	Content analysis	8 (2.5)	1 (1.5)	0 (0.0)	0 (0.0)	6 (8.8)	1 (1.5)	
	Others	5 (1.5)	2 (3.0)	1 (1.8)	0 (0.0)	2 (2.9)	0 (0.0)	
Data collection †	Self-reported questionnaire	223 (69.0)	47 (70.1)	40 (70.2)	44 (68.8)	46 (67.6)	46 (68.7)	
	Physiological measurements	42 (13.0)	13 (19.4)	5 (8.8)	3 (4.7)	12 (17.6)	9 (13.4)	
	Interview	82 (25.4)	9 (13.4)	15 (26.3)	21 (32.8)	23 (33.8)	14 (20.9)	
	Medical records	25 (7.7)	0 (0.0)	6 (10.5)	7 (10.9)	10 (14.7)	2 (3.0)	
	Observation	19 (5.9)	5 (7.5)	2 (3.5)	3 (4.7)	7 (10.3)	2 (3.0)	
	Delphi	1 (0.3)	0 (0.0)	0 (0.0)	0 (0.0)	1 (1.5)	0 (0.0)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323 (100.0)	67 (100.0)	57 (100.0)	64 (100.0)	68 (100.0)	67 (100.0)	
	Parametric statistics ‡	t-test	189 (58.5)	31 (46.3)	38 (66.7)	43 (67.2)	39 (57.4)	38 (56.7)
		Chi-square test	110 (34.1)	21 (31.3)	18 (31.6)	24 (37.5)	26 (38.2)	21 (31.3)
		ANOVA §	124 (38.4)	9 (13.4)	26 (45.6)	33 (51.6)	25 (36.8)	31 (46.3)
		Pearson correlation	90 (27.9)	5 (7.5)	24 (42.1)	29 (45.3)	16 (23.5)	16 (23.9)
		Multiple regression	89 (27.6)	25 (37.3)	18 (31.6)	22 (34.4)	6 (8.8)	18 (26.9)
		Logistic regression	34 (10.5)	11 (16.4)	8 (14.0)	5 (7.8)	3 (4.4)	7 (10.4)
		Others	78 (24.1)	0 (0.0)	15 (26.3)	20 (31.3)	17 (25.0)	26 (38.8)

† Data collection : Multiple responses; ‡ Parametric statistics : Multiple responses; § Analysis of variance.

이론은 1.2%밖에 되지 않아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간호이론과 간호연구의 연계 및 활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서 주요하게 나타난 간호개념은 자기효능감, 가족극복력, 삶의 질, 회복탄력성, 간호역량, 자존중, 통증신념 등이 있었으며, 하이브리드 모델과 진화론적 방법으로 개념분석을 한 연구도 있었다.

간호이론 외에 타 학문 또는 분야의 이론으로 자기조절이론, 근거이론, 사회학습이론, 희망이론, 스트레스 대처모형, 건강신념모델, 사회인지이론, 범이론적 모형, 계획행동이론, 학습전이모형, 셀프리더십 및 변혁적 리더십 이론 등을 연구

에 활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문에서 사용한 간호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4편 중 중범위 이론을 활용한 논문이 3편, 실무이론을 활용한 논문이 1편으로 간호학계에서 개발된 이론 중 거대이론이나 대상인구 중심 이론 등을 활용한 논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범위 이론을 활용한 3편의 논문 모두 Pender[6]의 Health Promotion Model (HPM)을 사용하여 뇌졸중 환자 및 부인암 환자 그리고 HIV 환자의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실무이론을 활용한 1편의 논문은 Ferrans, Zerwic, Wilbur와 Larson[7]의 건강 관련 삶의 질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3. Keyword Classifications by Nursing Meta-paradigm in KJAN for Last 5 Years (unit: the number of articles) (N=323)

Variables	Characteristics	Total	2010	2011	2012	2013	2014
		n (%)	n (%)	n (%)	n (%)	n (%)	n (%)
Total		323 (100.0)	67 (100.0)	57 (100.0)	64 (100.0)	68 (100.0)	67 (100.0)
Human	Patient of elderly	46 (14.2)	13 (19.4)	13 (22.8)	5 (7.8)	6 (8.8)	9 (13.4)
	Patient of adult (included elderly)	135 (41.8)	29 (43.3)	26 (45.6)	20 (31.3)	34 (50.0)	26 (38.8)
	Nurse	59 (18.3)	7 (10.4)	5 (8.8)	18 (28.1)	13 (19.1)	16 (23.9)
	Nursing student	8 (2.5)	0 (0.0)	3 (5.3)	1 (1.6)	2 (2.9)	2 (3.0)
	Ordinary person	50 (15.5)	15 (22.4)	7 (12.3)	14 (21.9)	8 (11.8)	6 (9.0)
	Others	25 (7.7)	3 (4.5)	3 (5.3)	6 (9.4)	5 (7.4)	8 (11.9)
Environment	Special care unit	31 (9.6)	6 (9.0)	3 (5.3)	6 (9.4)	8 (11.8)	8 (11.9)
	Shift work	20 (6.2)	1 (1.5)	4 (7.0)	0 (0.0)	9 (13.2)	6 (9.0)
	Outpatient clinic	27 (8.4)	2 (3.0)	11 (19.3)	0 (0.0)	8 (11.8)	6 (9.0)
	Community	99 (30.7)	11 (16.4)	20 (35.1)	25 (39.1)	17 (25.0)	26 (38.8)
	Hospital	106 (32.8)	45 (67.2)	9 (15.8)	26 (40.6)	14 (20.6)	12 (17.9)
	Others	40 (12.4)	2 (3.0)	10 (17.5)	7 (10.9)	12 (17.6)	9 (13.4)
Health	Quality of life	35 (10.8)	6 (9.0)	6 (10.5)	8 (12.5)	6 (8.8)	9 (13.4)
	Depression, anxiety, suicide	56 (17.3)	11 (16.4)	8 (14.0)	17 (26.6)	10 (14.7)	10 (14.9)
	Knowledge	27 (8.4)	10 (14.9)	6 (10.5)	6 (9.4)	3 (4.4)	2 (3.0)
	Stress	36 (11.1)	11 (16.4)	5 (8.8)	12 (18.8)	2 (2.9)	6 (9.0)
	Pain	16 (5.0)	1 (1.5)	4 (7.0)	6 (9.4)	5 (7.4)	0 (0.0)
	Attitude (self-esteem, belief, etc)	51 (15.8)	12 (17.9)	4 (7.0)	13 (20.3)	14 (20.6)	8 (11.9)
	Health promotion	20 (6.2)	1 (1.5)	6 (10.5)	3 (4.7)	4 (5.9)	6 (9.0)
	Health condition	54 (16.7)	3 (4.5)	5 (8.8)	30 (46.9)	9 (13.2)	7 (10.4)
	Self care	15 (4.6)	7 (10.4)	4 (7.0)	2 (3.1)	2 (2.9)	0 (0.0)
	Social support	19 (5.9)	2 (3.0)	1 (1.8)	8 (12.5)	4 (5.9)	4 (6.0)
	Cancer	4 (1.2)	0 (0.0)	0 (0.0)	4 (6.3)	0 (0.0)	0 (0.0)
	Self-efficacy	14 (4.3)	4 (6.0)	2 (3.5)	2 (3.1)	2 (2.9)	4 (6.0)
	Other somatic symptom	35 (10.8)	7 (10.4)	9 (15.8)	0 (0.0)	17 (25.0)	2 (3.0)
	Others	107 (33.1)	9 (13.4)	12 (21.1)	17 (26.6)	24 (35.3)	45 (67.2)
Nursing	Patient education	7 (2.2)	2 (3.0)	2 (3.5)	1 (1.6)	2 (2.9)	0 (0.0)
	Massage	2 (0.6)	0 (0.0)	1 (1.8)	0 (0.0)	0 (0.0)	1 (1.5)
	Coping	9 (2.8)	2 (3.0)	2 (3.5)	0 (0.0)	4 (5.9)	1 (1.5)
	Application of replacement therapy	11 (3.4)	1 (1.5)	1 (1.8)	2 (3.1)	4 (5.9)	3 (4.5)
	Application of other program	42 (13.0)	11 (16.4)	8 (14.0)	9 (14.1)	9 (13.2)	5 (7.5)
	Development of program	12 (3.7)	5 (7.5)	2 (3.5)	1 (1.6)	3 (4.4)	1 (1.5)
	Nursing intervention (except above)	18 (5.6)	0 (0.0)	2 (3.5)	4 (6.3)	10 (14.7)	2 (3.0)
	Nursing diagnosis	2 (0.6)	0 (0.0)	1 (1.8)	0 (0.0)	0 (0.0)	1 (1.5)
	Hospice	1 (0.3)	1 (1.5)	0 (0.0)	0 (0.0)	0 (0.0)	0 (0.0)
	Effect the issue	140 (43.3)	31 (46.3)	31 (54.4)	37 (57.8)	17 (25.0)	24 (35.8)
	Others	79 (24.5)	14 (20.9)	7 (12.3)	10 (15.6)	19 (27.9)	29 (43.3)

Table 4. Conceptual Frameworks used in the KJAN Articles for Last 5 Years (unit: the number of articles) (N=323)

Variable	Characteristics	Total	2010	2011	2012	2013	2014
		n (%)	n (%)	n (%)	n (%)	n (%)	n (%)
Total		323 (100.0)	67 (100.0)	57 (100.0)	64 (100.0)	68 (100.0)	67 (100.0)
Research type	Theories of nursing	4 (1.2)	0 (0.0)	0 (0.0)	1 (1.6)	2 (2.9)	1 (1.5)
	Concept of nursing	15 (4.6)	0 (0.0)	2 (3.5)	1 (1.6)	7 (10.3)	5 (7.5)
	Others	21 (6.5)	4 (6.0)	3 (5.3)	1 (1.6)	7 (10.3)	6 (9.0)
	None	283 (87.6)	63 (94.0)	52 (91.2)	61 (95.3)	52 (76.5)	55 (82.1)

Table 5. Examples of Nursing Theories Used in the KJAN for Last 5 Years

No.	Published by year	Title	Nursing theories	
			Categories	Model
1	2012	Predictive mod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Korean goose daddies	Practice & situation specific theories	Mod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2	2013	Influencing and mediating factors in health behaviors among stroke patients	Middle range theories	Model of health promotion
3	2013	The comparison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post traumat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tages of survivorship in patients with female genital neoplasm	Middle range theories	Model of health promotion
4	2014	Factors influencing health-promoting behaviors in people living with HIV	Middle range theories	Model of health promotion

논 의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최근 5년간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323편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유형 및 연구방법 등을 분석하고, 간호이론 기반 연구 현황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성인간호학회지의 질적 성장의 일환으로 간호 이론과 연구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수행되었다.

그 동안 성인간호학회는 1989~2011년 양적 연구 동향분석[2], 1989~2011년 질적연구 동향분석[3], 2004~2009년 게재불가 논문 분석을 통한 성인간호학회지의 발전방안 모색 [4,12]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학회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학회지의 연구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는 간호 지식체로서의 이론과 이론의 검증과 정인 연구가 상호 순환하는 과정에서 간호 이론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측면을 직시하고, 성인간호학회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이론, 연구, 실무의 발전에 균형적으로 기여하는 성인간호학회지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논문에 게재된 주요어의 빈도를 조사함으로써 연구의 주제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간호의 메타 패러다임의 각 영역에 맞춰 빈도가 높은 주요어를 분석한 결과, 인간의 영역은 성인 환자, 환경 영역은 병원, 건강 영역에서는 우울, 불안, 자살이 간호 영역은 제반 영향요인 분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2] 등이 창간호부터 2011년까지의 성인간호학회지 논문을 분석한 결과 노인, 우울, 불안 등의 빈도가 높음을 밝혀낸 것과 일치하였다. 이는 성인간호학회지의 연구 대상자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 증진에 대한 노인인구의 관심 증대 등으로 간호사가 간호현장

에서 성인을 포함한 노인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이들 대상자의 우울, 불안 등 정신 건강 영역에서의 문제 증대와 더불어 이들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관심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에 대한 동향 파악에서 최근 5년간 양적 연구가 7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대한간호학회지의 2004년부터 3년간의 양적 연구 83.9%[13], 성인간호학회지의 1989년부터 23년간의 양적 연구 83.4%[2]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질적 연구는 총 37편으로 전체 논문의 11.5%를 차지하였는데, 질적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현상학적 접근, 문화기술지 등의 기타 접근, 내용분석, 근거이론적 접근 6편(13.3%)의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선행연구의 분포와 비슷하였다[3]. 성인간호학회지의 질적 연구 비율은 2004~2006년 5.2%[12], 2006~2009년 9.5%[4], 2010~2014년 11.5%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적 연구가 실증적 방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간호현상의 의미 규명 및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의 간호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 간호, 건강, 환경의 본질을 탐색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면서도 간호 개념의 개발이나 검증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발전적 경향으로 사료된다. 질적 연구 중 개념 분석 연구가 10편으로 22.2%를 차지하였는데, 개념은 간호이론의 핵심 요소로 개념에 대한 연구는 이론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14]. 분석된 논문 중 Walker와 Avant의 개념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심정지에 대한 개념 분석을 시행한 Lee 등의 연구는 만성 및 급성기 환자와 관련된 간호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15], 로저스의 진화론적 방법으로 친환경적 건강 행위에 대한 개념 분석을 통해 가설을 수립하여 제시한 Kim의 연구는 거대이론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3]. 이와 같이 개념 분석 연구는 간호의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 현상이나 환경

과 관련된 간호 현상을 설명하고 간호의 개입, 결과를 추론하는 데 근간이 되므로 다양한 성인간호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논문에서 간호이론 및 개념 등을 사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간호이론이나 개념을 사용한 논문이 19편(5.8%), 타학문 이론을 사용한 논문이 21편(6.5%)으로 이 중 간호이론을 사용한 논문이 4편(1.2%)에 불과해,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최근 5년간의 논문에서 간호이론 연계 및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이론의 적용이나 검증 연구가 많지 않은 데 비해, 타학문 이론을 사용한 논문은 6.5%로 간호이론에 비해 비교적 많았다. 이것은 간호학이 인접 학문의 관점을 수용하여 관심영역을 확장시켜나갔음을 알려주는 방증이 될 수 있으나, 간호이론가들이 제시한 독자적인 간호 이론의 활용과 그 개념적 틀을 기반으로 한 간호 연구의 증가가 간호 지식체의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좀 더 크므로 간호이론의 검증과 적용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세계화 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성인 대상자, 급변하는 환경, 간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간호이론을 적용하여 검증하거나, 이로부터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개념개발이나 이론 구축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므로 성인간호학회지 차원에서 간호이론을 적용한 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논문에서 사용한 간호이론은 중범위 이론인 Pender의 HPM을 사용한 연구가 3편으로 가장 많았다[6]. 이는 Pender의 이론이 실증적 변수를 중심으로 개념 정의가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고 개념간의 관계 역시 명확하여 건강에 대한 인지 및 지각을 가지고 있는 성인 대상자에게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Kim 등[8]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행위에 대한 영향요인 및 매개요인을 HPM을 사용하여 건강행위에 대한 외인 변수와 내인 변수를 고루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외인 변수 중 사회적 요인에 가족 동거 여부만 포함되어 경제적 변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내인 변수 중 건강 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등을 포함하였으나 행동 장애요인이나 행동의 헌신 정도, 건강 책임감, 영양 등의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Lee와 Park[9]의 연구는 부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생존단계별 건강증진행위를 HP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외인 변수는 연령과 월 소득, 직업, 결혼상태, 교육 수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내인 변수는 인지된 건강상태, 치료방법 등 중심으로 선정되어 상황적 영향요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관리 등의 변수는 사용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10]의 연구 역시 HPM을 사용하여 HIV 감염인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외인변수로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직업, 동거인, 교육, 월 소득, 진단 후 경과시간, 투약여부 등을 선정하였고, 내인변수로 인지된 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 인지된 건강상태, 건강증진 행위, 건강 책임감, 신체적 활동, 영양, 정신적 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등을 사용하여, 중범위 이론을 사용한 3개의 논문 중 상대적으로 HPM의 개념적 틀에 비교적 적합하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HPM을 활용하여 연구한 3편의 논문 중 2편은 중심개념의 일부만을 검증하였고[8,9], 1편만이 중심개념의 대다수를 검증하여 이론의 개념적 틀을 충실히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10], 이는 개인정보 확보 및 자료출처상의 한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실무이론을 활용한 1편의 논문은 Ferrans 등[7]의 건강 관련 삶의 질 모델(HRQOL)을 적용한 Cha[11]의 연구로, 기러기 아빠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Ferrans 등[7]의 건강 관련 삶의 질 모델(HRQOL)은 Wilson, Cleary, Cha의 삶의 질 모델을 개정하였으며[16],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생물학적 기능, 증상, 기능수준, 일반적인 건강 지각 등이 변인으로 작용하여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개념적 모형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Cha의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적 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 및 운동 빈도 그리고 영양 상태를, 환경적 특성으로 월수입, 빈거기간, 가족 간의 연락빈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생물학적 특성은 기러기 아빠의 경우 환자가 아니므로 검사결과 및 신체사정 그리고 의학적 진단은 변수에서 배제하여 우울정도,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지각을 분석하였는데, 환경적 특성에서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 주거환경 등의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이 구체적으로 고려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해야 좀 더 명확한 이론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중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1].

분석된 논문들에서 주로 나타난 간호개념은 자기효능감, 가족 극복력, 삶의 질, 자가간호, 회복탄력성, 간호역량, 자아 존중, 통증 신념 등이었는데, 이들 개념들은 Kim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존의 간호 개념들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 이를 통해 간호의 관심 영역들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효함을 확인할 수도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대상자의 특성 변화에 대한 이들 간호개념의 설명력이 충분하지, 혹은 반복되는 현상에 대한 불충분한 영역이 있다면

새로운 간호개념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추후 연구자들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1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연구논문 323편을 대상으로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이론 기반 연구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간호이론과 연구의 연계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성인간호학회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간호 지식체로서의 이론과 이론의 검증 과정인 연구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간호 이론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으로 이론, 연구, 실무의 발전에 균형적으로 기여하는 성인간호학회지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최근 5년간의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창간시점부터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된 논문에서 사용한 간호이론의 수가 적어 게재된 논문의 간호이론의 트렌드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논문 분석에 있어 연구자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이 중 확인과 합의과정을 거쳐 각각의 논문에서 다루어진 이론, 개념, 현상 등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이론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학회지 투고 시 이론적 기틀을 제시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일부 간호이론에 국한된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거대이론 및 중범위 이론 등의 간호이론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독자적인 간호지식체의 발전을 학회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회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을 포함한 성인, 만성질환에 있어 제반 영향요인에서 도출된 처방적 지식체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간호전문직의 간호이론 발전과 간호이론을 적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1. Choi KS, Song MS, Hwang AR, Kim KH, Chung MS, Shin SR, et al.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0;30:1207-18.
2. Kim YK, Hwang SK, Kim IJ, Kim JS, Oh HY, Lee JK, et al. Analysis of quantitative research published b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1989-2011).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2;24(1):85-97.
<http://dx.doi.org/10.7475/kjan.2012.24.1.85>
3. Kim YK, Hwang SK, Shin SJ.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published b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989-2011).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1;23(6):633-41.
4. Hwang SY, Yong JS, Kim IJ, Kim NS, Park MH, Park YH, et al.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through Analysis of accepted and rejected papers (2007-2009).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10;22(1):103-12.
5. Shin HS, Hyun MS, Ku MO, Cho MO, Kim SY, Jeong JS, et al.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focused on research trends, intervention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in the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40(1):139-49.
<http://dx.doi.org/10.4040/jkan.2010.40.1.139>
6. Pender NJ, Murdaugh CL, Parsons MA.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4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2002.
<http://dx.doi.org/10.1177/1524839915589313>
7. Ferrans CE, Zerwic JJ, Wilbu, JE, Larson JL. Conceptual mod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05;37(4):336-42.
8. Kim MK, Lee HR, Kwon JY, Oh HS. Influencing and mediating factors in health behaviors among stroke patients. *Journal of Society of Adult Nursing*. 2013;25(6):610-21.
<http://dx.doi.org/10.4135/9781412994071.n148>
9. Lee, ES, Park JS. The Comparison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post traumat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tages of survivorship in patients with female genital neoplasm. *Journal of Society of Adult Nursing*. 2013;26(3):312-21.
<http://dx.doi.org/10.7475/kjan.2013.25.3.312>
10. Park YM, Shin G, Kim JY. Factors influencing health-promoting behaviors in people living with HIV. *Journal of Society of Adult Nursing*. 2014;26(2):234-43.
<http://dx.doi.org/10.7475/kjan.2014.26.2.234>
11. Cha EJ. Predictive mod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korean goose daddies. *Journal of Society of Adult Nursing*. 2012;24(4):428-37.
<http://dx.doi.org/10.7475/kjan.2012.24.4.428>
12. Park YH, Lee YW, Kim OS, Cho MO.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for Adult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08;20(1):176-86
13. Suh YO, Park JS, Yang JH, Kim HY, Suk MH, Shin HS, et al.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 Nursing. 2007;37(6):1013-9.
14. Walker LO, Avant KC. Strategy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2001.
 15. Lee KI, Oh HS. Concept Analysis of cardiac arrest: identifying the critical attributes and empirical indicator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4;26(5):573-83.
<http://dx.doi.org/10.7475/kjan.2014.26.5.573>
 16. Wilson IB, Cleary PD. Linking clinical variables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conceptual model of patient outcomes. JAMA. 1995;273(1):59-65.
<http://dx.doi.org/10.1001/jama.1995.03520250075037>